BFAA 사)부산미술협회

부 산 미 술

격월간 부산미술

1992년 10월 1일 창간
2014년 2월 7일 복간

미술인 위상 강화와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부산미술협회 www.bfaa.or.kr 제105호 2025년 3월 1일 토요일

2025년 (사)부산미술협회 정기총회 성료

2025년도 실행키워드 '기회는 기다리지 않는다'로 정진

제24회 오늘의 작가상 시상
초대작가 인정서 수여
부산미술협회 공로상 수여
2024년도 수지 결산보고
2025년도 사업계획안 확정

사)부산미술협회 2024년 정기총회가 지난 1월 25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사)부산미술협회는 지난 1월 24일 오후 3시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총 회원 2,231명 중 551명(참석 464명, 위임 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이 참석해 2024년도 수지 결산보고 및 2025년도 사업계획안을 확정 지었다.

정기총회는 식순에 따라 제1부 △부산미술협회 공로상 수여식 △오늘의 작가상 경과보고 △제24회 오늘의 작가상 심사결과 보고 및 시상 △2025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 인정서 수여식이 진행됐다.

제2부에서는 본회의 성원 보고와 총회 의장의 개회 선언 후, 경과보고로 △2024년 업무 보고 △2024년 경상비 수지결산 보고 △2024년 사업 결과 및 수지결산 보고가 이뤄졌다. 안건으로는 ▲의안1) 2025년 사)부산미술협회 사업계획(안) ▲의안2) 2025년 경상비 예산(안) 건 등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제1부, 2025 공로상에는 한국화 분과 관송 이정근, 서양화분과 김용달, 조각분과 문병락, 판화분과 차동수, 공예분과 장연우, 디자인분과 강재철, 서예분과 김후분, 영상·설치분과 임상국, 문인화분과 오동수, 수채화분과 조귀선, 민화·불화분과 김재춘 작가가 선정되어 감사장을 전달했다.

작가 정신을 바탕으로 왕성한 창작 의욕을 고취하며 최근 3년간의 활발한 작품 활동과 작업 성과를 바탕으로 본 협회 회원에게 수여하는 '제24회 오늘의 작가상' 시상식이 이어져 많은 회원의 축하를 받았다.

제24회 오늘의 작가상 본상에는 공예분과 최시복 작가가, 청년작가상은 한국화분과 이지훈 작가가 선정된 바 있다. 그리고 2025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인 ▷서양화 부문 김남영, 김정운, 김영복, 김현주 ▷조각 부문 노애란 ▷공예 부문 이은지 ▷서예 부문 김해경, 강길희, 김경주, 김승수, 김희연, 도현정, 서금옥, 연진숙, 유창아, 이영락, 장민근, 지인숙, 최인호, 하종길 ▷문인화 부문 김석권, 김재경, 김해구, 김현경, 김희연, 신혜식, 여윤옥, 오필은, 윤혜반, 이애선, 이화영, 정옥연, 하봉애, 한서현, 홍춘도 ▷수채화 부문 김옥선 ▷민화불화 부문 이현승, 장창숙, 정지영 작가에게 인정서를 수여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제2부 본회 안건의 사업 계획안 승인에 따라, 사) 부산미술협회는 2025년에도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부산미술제', 'BFAA아트페어', '청소년 미술캠프', '송혜수 미술상', '오늘의 작가상', '해외자매도시교류전', '부산자랑10가지 순회시민예술제', 부산미술 소식지 발간, 입찰 받은 전시 공간 운영, 입주 작가 창작 공간 운영 등 협회 회원과 부산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32대 최장락 이사장은 "부산미술인을 대표하는 80여년의 역사와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2025년 부산미술협회가 이 험난함을 극복해 헤쳐나가리라 믿는다. 정기총회 유인물 자료를 보면,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며 미술인 위상을 강화하기위해 본회는 '미술도 사업이다'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진행해 왔다. 부산미술협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바탕으로 작년부터 사업과 연계 시킬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미술인들이 갖고 있는 작업물을 협회에서는 어떻게 정리해서 회원들의 부를 축적하고 작품에 대한 창작을 비롯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역할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 많이 고민했다.

특히 2025년도 뱀의 특징은 다산이고, 어느 시점을 지나면 자신의 허물을 벗어 생존한다. 그래서 부산미술협회 회원님들도 자신의 작업적 역량을 발휘하면서 동시대의 미술에 맞는 흐름을 잘 캐치하시고 극복하여 새로운 창작을 해나가는 기대를 해본다.

2025년 실행키워드는 '기회는 기다리지 않는다'이다. 이를 올해의 키워드로 삼아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색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여 사업들을 구상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부터 사대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부창 제1부두 창고에 12개 분과, 908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며 부산시민 및 전국의 언론을 통해 홍보해서 각인시키고 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전국의 열린 단체에 부산미술협회의 역량을 보여주고 산업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돌아올 것이다.

앞으로 아트페어는 기존의 방식을 타파한다. 전국에서 찾아와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술제, 아트페어가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조적 작업을 해 볼 참이다. 올해의 키워드를 삼아, 각 분과의 회원 분들도 기회를 쟁취하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부산미술협회는 회원들의 힘을 빌어서 더 나은 기회를 쟁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년 부산미술협회는 ▷부산미술협회 회원 창작 작품 전시 활성화 및 지원 ▷2026년 창립90주년 준비에 대한 현안 ▷회원의 작품 및 인명사전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백서 실행 ▷문화예술산업 1인 창작자인 부산미협회원 미술작가의 예술상공인 정립 ▷대한민국의 정신과 역사인 대표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부산미술인과 연계하는 미디어 아트 실행 모색 ▷산업과 연계하는 프로젝트 실행계획을 중점적으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성실히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2025 제14회 BFAA 부산국제아트페어, 제45회 부산미술제 올해 상반기 6월 26일 개최

부산미술협회와 디자인하우스(행복이 가득한 집)가 협업, 공동주최

사) 부산미술협회가 매년 10월에 개최해온 BFAA 부산국제아트페어와 부산미술제가 올해는 6월에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포스터.

리빙디자인과 미술이
융합한 형태의 전시로
벡스코 제2전시장서
6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열어

2025년 제14회 BFAA 부산국제아트페어와 제45회 부산미술제가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부산벡스코 제2전시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회는 기다리지 않는다'를 메인키워드로 시대에 발맞춰 부산의 지역적 문화와 사업을 바탕으로 예술적·산업적 가치를 강조하고 이윤을 생산하고자 디자인하우스 업체와 연계하여 리빙디자인과 미술을 융합한 새로운 전시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부산미술협회를 대표하는 대규모 미술행사중 하나인 BFAA국제아트페어와 부산미술제는 사)부산미술협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사)부산예술단체총연합회, 부산일보,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MBC부산문화방송, 부산경남대표방송 KNN의 후원과 BNK 부산은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메세나의 특별후원으로 작가 부스별 전시를 주최하고 작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를 통해 부산미술협회는 부산미술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다양한 협업을 통해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세계까지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문화적 소통을 이끌어내며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의 지역적 문화와 사업을 바탕으로 예술적·산업적 가치를 주목하고 이윤을 생산하고자 디자인 하우스 업체와 연계하여, 예술과 리빙의 경계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창의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예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설치미술, 몰입형 예술 전시공간, 컬렉터의 방, 공동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 전시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지역 미술작가들의 뛰어난 작품을 소개하고,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부산미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리빙디자인과 미술을 융합한 협업 기획전과 체험행사를 통해 지역문화와 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리빙디자인 분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자이너 프로모션을 모토로 디자이너 브랜드, 기업들과 함께 국내외 선도적인 문화예술 디자인 콘셉트 전시 및 트렌드를 선보이고자 한다.

부산 미술협회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와 인간의 기술 문명이 가져다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그 너머에 존재하는 현상을 주목한다. 예술의 본질을 지속시켜나가기 위해 시대에 걸맞는 가능성을 탐구하고 다양성을 토대로 새로운 감각적 체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동시대 시각예술 문화의 다양한 장르를 더욱 폭넓게 수용하고 개성이 담긴 작가들의 작품세계와 새로운 접근방식을 포착하고 접근하고자 한다.

이번 협업 전시형태를 통해 각 행사의 성격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예술 작품과 리빙디자인의 결합으로 순수미술 작품이 콘텐츠가 되고 그것이 기술과 융합되어 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탈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상 사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작업을 통해 저마다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관람객에게 직관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여 산업과 순수미술을 융합한 지역문화 산업을 성장시키는 플랫폼을 마련한다.

명사칼럼

부산 미술, 미래를 그리려면…

김진수
전 부산일보 대표

현대 미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아트, 미디어 아트, NFT(대체불가능토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의 기술들은 미술의 경계를 넓혀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AI)의 도입은 미술의 창작, 유통, 감상 방식을 변화시키며 예술의 영역을 재정의할 정도입니다. 또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는 예술 작품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와 공유할 기회를 제공해 미술을 더 이상 물리적 공간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VR을 활용한 3D 작품이나 AR을 통한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결합은 관람객에게 새로운 차원의 몰입감을 선사하며 미술의 본질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술과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미술의 패러다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미술의 미래를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 미술은 현대 미술의 글로벌화 속에서 고유성을 지키며 국제적 경쟁력과 자원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국제 미술 시장의 급성장으로 전 세계 예술가들이 동일한 플랫폼에서 작품을 공유하고 경쟁하는 환경이 형성됐지만, 이에 따라 지역 미술은 되레 국제 미술 시장에서 주목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술적 가치와 인정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져 가면서, 지역 고유의 특성을 지닌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외면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미술협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부산미술협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습니다. 그간 부산미협은 지역미술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로 지역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맞아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불어 현대 미술의 급격한 변화와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과제도 떠안게 되었습니다.

부산미협의 당면 과제는 변화하는 미술 환경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디지털 미술, 설치 미술, 다매체 작업이 주도하는 현재의 미술 지형 속에서, 부산미협은 더 이상 과거의 틀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예술적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창작물을 발굴하고 이를 전 세계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미협의 중요한 임무이자 역할입니다. 이에 부산미협은 지역 미술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해외 미술계와 교류를 증진하고 국제 미술 전시와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산미협이 주도적으로 국제 전시를 유치하거나, 부산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만드는 전략적 노력은 지역 미술의 글로벌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21세기 들어 디지털 미술은 미술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I, VR, AR 등 새로운 기술들이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부산미협은 디지털 미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미술 트렌드를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 미술가들이 기술기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디지털 미술을 활용한 전시와 행사를 기획함으로써 다양한 관객층을 형성하고,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은 높은 잠재력 있는 예술가를 보유한 도시지만, 이들의 활동이 전방위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미협은 지역 예술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술과 산업, 기술을 결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도 필요합니다. 부산미협은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젊은 작가들의 창작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산이 예술의 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역 미술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적인 미술 흐름과 연결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도 미술협회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협회는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미술이 단순히 관람의 대상이 아니라 일상에서 함께하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미술 환경을 위해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미술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도시 부산은 단순한 예술 소비지를 넘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예술 생산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미술의 대중화 역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술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이와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 문화자원이어야 합니다. 부산미협은 지역 내 학교, 문화기관, 시민단체와 협력해 미술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관과 갤러리뿐만 아니라 거리나 공공장소에서의 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미술을 더욱 가까이 접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산미협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때 지역 미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부산 미술의 전반적인 수준도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부산 미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은 꼭 필요합니다.

글로벌한 미술 흐름 속에서 부산 미술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미술계의 열린 사고방식과 상호 소통입니다. 부산미협은 설립 이래로 지역 미술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수많은 예술가와 함께 부산의 문화적 자산을 풍부하게 만들어왔습니다. 이 여정은 멈춤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80년을 넘어, 부산미협이 더욱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길 기대합니다.

사)부산미술협회 제1차 이사회 열려

사)부산미술협회는 지난 2월 28일 2025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었다

사)부산미술협회 2025년도 제1차 이사회가 2025년 2월 28일 오후6시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4층에서 열렸다. 안건은 재직 이사회의 적 이사 총 65명의 임원 가운데 48명이 참석하여 심의 의결되었다.

보고 사항으로는 △2024 제32차 정기총회 결과 보고 △2025년도 주요행사 개최일정 보고 △제24회 오늘의 작가상 전시일정 보고 △제32대 공예분과 이사 추가 임명 보고 △2024 제35회 청소년미술캠프2_겨울해외(일본)캠프 결과 보고 △2025년 (사)부산미술협회 분과기획전 결과보고가 있었다.

이사회 안건으로는 ▲안건1_제21회 송혜수미술상 운영계획(안) ▲안건2_제36회 부산청소년미술캠프 운영계획(안) ▲안건3_2025 제13회 「부산!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_OPEN MATCH」 청년작가전 운영계획(안) ▲안건4_제39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운영계획(안) ▲안건5_제34회 부산자랑 10가지 순회시민예술제 운영계획(안) ▲안건6_제51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사업계획(안) ▲안건7_제14회 BFAA아트페어 사업계획(안) ▲안건8_제45회 부산미술제 사업계획(안) ▲안건9_신혼가정 원화작품 무상기증 프로젝트(안) ▲안건10_회원의 전과, 탈퇴, 복권 신청 건 등이 심의 의결했다.

또한, 사무국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 30분으로 조정되었다. 기타토의로는 갤러리 대관현황, 인쇄물 발주 견적의뢰 홈페이지 공고(부산미술대전, 부산미술제, BFAA아트페어), 2025년 경상비 예산 건, 2025년 회비미납현황 및 제명대상 분과별 회원 수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집행부는 부산 미술계의 다층적인 변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부산! 미술로 꿈꾸게 하다' 최우수작가 초대展

전시장에서 포즈를 취한 이지훈, 이지운, 이현정 작가(왼쪽부터).

부산지역 젊은 미술인의 축제인 '제12회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OPEN MATCH展에서 최우수작가로 선정된 이현정(공예), 이지훈(한국화), 이지운(서양화) 작가의 초대전 1월 15일 27일까지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열렸다. 사)부산미술협회는 지난해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공모에 참여한 부산지역 청년 작가들을 선별해 최우수 작가와 우수 작가를 선정한 바 있다.

작년, 부평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 우수작가(박상희, 박중선, 장샘인들, 홍민수)들의 릴레이 형식의 개인전에 이어, 이번에는 최우수 작가들의 전시회가 열려 우수한 기량을 선보였다.

이현정 작가는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의 이미지를 현실이 아닌, 초현실적인 낯선 세계를 모험하듯 상상과 상징을 통해 금속 조형작품으로 실체화시켰다. 이지훈 작가는 변해가는 도시를 배경으로 각자의 이상향의 세계를 조응하며 '달', '비행기'의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 우리가 바라본 현실과 이상을 조응하듯 마주하게 한다. 이지운 작가는 정해진 사회적 기준과 현상 속 부딪히는 자신의 ego을 들여다보고 숨겨진 인간의 본능을 캔버스에 그려냈다.

부산미술협회는 부산 미술계의 미래를 짊어질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매년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OPEN MATCH展을 열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부산 지역 젊은 작가들에게 큰 자양분으로 작용하여 지역미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창작활동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자 앞장서고 있다.

이 작가를 주목한다 29

한성희의 판화는 우리의 인생을 닮았다

대담/글 : 정연은 (학술평론분과 위원)

☑ 판화 한성희

햇살이 눈부시던 청사포의 바다는 그 이름처럼 맑고 파랬다.

잔잔하게 퍼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작가 작업실의 벨을 눌렀다. 소박한 웃음을 머금고 소년처럼 수줍은 얼굴로 문을 열어준 사람, 한성희 작가였다.

한성희 작가의 작업실 내부는 조금 특이했다. 안에 들어서자마자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판화 제작에 필요한 커다란 기계들과 각종 연장 도구들이 즐비하게 작업실을 채우고 있는 광경이었다. 특히 보이기에도 육중하고 견고해 보이는 프레스 기계가 한쪽에 자리하고 테이블 위에는 예리하거나 평평하게 생긴 다양한 공구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벽면과 바닥, 군데군데에는 그가 제작한 아름다운 작품들이다.

그의 작품은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와!"하는 탄성이 나왔다. 초현실적이며 환상적이라 그 작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혹은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듯 황홀했기 때문이다. 또한 작품에 면면히 흐르는 지성은 관람자를 인생의 깊은 통찰의 세계로 이끄는 듯했다. 이토록 그의 작품은 한 점 한 점 모두 관람자를 단박에 사로잡기에 손색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빠를 깎는 수고를 수반해야 얻을 수 있는 작품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한성희 작가의 '장미와 몽돌(2024년)' 등 특히 최근 작품들을 보면 그의 작품은 소름이 끼칠 만큼 정교하고 섬세하다. 그렇게 섬세한 기반 위에 깊은 정신적 세계를 올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보는 관람자는 찬탄의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그의 비밀병기와도 같은 것은 작가만이 할 수 있는 '기법'에 있다. 그의 주된 판화 기법은 '메조틴트'를 사용한다.

이 메조틴트의 의미는 말 그대로 중용, 즉 중간을 뜻하는 '메조'와 색조를 말하는 '틴트'가 결합된 말이다. 작가는 경우에 따라 메조틴트와 같은 정밀한 효과를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으면서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쿠아틴트'도 함께 사용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메조틴트를 더 편애한다.

한성희 작가는 대학 시절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석판, 동판 등등 다양한 판화 장르를 두루 섭렵해 왔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자기 체질'에 맞는 것은 '동판'이었다. 동판의 종류 중에는 '아쿠아틴트(Aquatint)', '메조틴트(Mezzotint)'가 있다. 아쿠아틴트는 부식을 이용하지만, 메조틴트는 부식을 이용하지 않아서 수정이 힘들 뿐 아니라 전반적인 제작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하필 그중에 '메조틴트'를 특히 선호하는 것이다.

메조틴트는 일단 작업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힘들다. 또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매우 지난한 작업이다. 그래서 메조틴트 작업을 할 때면 주로 밤샘 작업을 해야 할 때가 많다. 그렇게나 힘든 작업인 만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메조틴트 작업을 하는 작가가 전국을 통틀어 봐도 채 20명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기야 작업이 너무 고되고 어렵다면, 또 오랜 시간 인내와 싸워야 한다면 그 누가 쉽게 넘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메조틴트가 주는 매력을 결코 떨쳐내지 못했다. 한마디도 한평생 그 미련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메조틴트가 무엇이길래? 메조틴트의 매력이 무엇이길래? 그리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메조틴트만이 가능케 하는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 때문이다. 작가는 그 정교한 표현에서 오는 특유의 느낌을 "세상에 혜가 서서히 떠오를 때의 여명과도 같은 느낌"에 비유한다. 그 여명과도 같은 느낌이 작품을 깊이 있게 해주며 작가가 추구하는 극사실적 느낌과 초현실적 낯선 느낌을 조합해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충격을 안겨주는 것이다. 초현실적인 꿈결 같은 세계로 인도되는 감미로운 충격 말이다.

Image of form _18×26cm Mezzotint 2024

한성희 동판화전
Han, Soung-Hee
The Solo Intaglio Exhibition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만덕 M543에서 열린 한성희 동판화展 전시도록표지.

그가 작업을 할 때면 이 세계의 시계는 멈추어버린다. 그렇게 작가가 작품을 한 점 제작하는 데 있어서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하나의 단계를 뛰어넘는 시간은 보름 이상이 걸린다. 이런 과정에서 작가의 손에서 결과물, 즉 판이 나오면 그다음 과정으로 종이에 찍어 내는 것이다. 장시간 낮과 밤을 모두 바쳐 제작한 판을 찍어낼 때 그는 극도의 흥분감을 감추지 못한다.

아무리 노련한 작가지만 결과물이 나올 때 어떤 것은 기대보다 못한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노력하고 애쓴 만큼 잘 나오는 날도 있는 것이다.

작가는 예상한 대로 판화 결과물이 아름답고 만족스럽게 나온 날은 기뻐서 잠도 못 자는 소년이 된다. 이것이 그가 헤어 나오지 못하는 판화의 매력인 것이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인생을 그대로 닮은 것이 그의 판화다.

왜 이 작가는 남들이 어려워서 회피하는 가장 어려운 작업에 한 평생을 치열하게 바쳤을까? 여기에 대한 그의 답변은 의외로 심플하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한다."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답변조차 남들은 쉽게 이해 못 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잘 웃고, 유쾌하고, 어느 정도는 낙천적일 것 같은 작가의 의외의 이면을 본다.

작가가 판화와 인생을 함께한 것은 어쩌면 그의 숙명인 것 같다. 한성희 작가는 1950년 경남 통영의 상당히 여유로운 집안의 3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미술을 좋아해서 학창 시절 각종 사생대회에 나가 상이란 상을 모조리 휩쓸었던 작가는 중학교 때 이미 미술작가로서의 진로를 결정해 버렸다. 또한 집안 어른들과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 했다.

그런 작가가 대학에 들어와 가장 흥미를 느꼈던 분야가 판화였다. 그것도 우연히 접한 대학에서의 판화 수업이었는데 말이다. 당시 작가가 이 판화에 얼마나 심취했으면 판화를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지도해줄 선생님을 따로 찾아가 배울 정도였다. 당시는 판화작가라고는 전국적으로 다 헤집고 찾아본다 해도 채 10명이 안 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판화'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또 판화 작가도 극도로 희박하던 시절 판화에 청춘과 인생을 바친 국내 판화의 개척자가 한성희 작가다. 그래서 그는 순리적으로 우리나라 전문 판화 작가 1세대가 된 사람이다.

어느 분야에서나 1세대라는 타이틀은 무거운 것이며 동시에 영광스러운 수식어이다. 작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여한 이 모든 수식어를 대수롭지 않다는 듯 무심히 내려놓고 바닷가의 작업실에서 가볍고 자유롭게 나비처럼 훨훨 날아다니는 사람 같다. 그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치열함이 오히려 그에게 자유로운 날개를 달아준 듯하다.

국내 1세대, 한국에 몇 안 되는 특별한 작가라는 타이틀을 갖고도 평생 부산을 떠나지 않는 점, 쉽고 편한 작업 방식은 애초에 쳐다보지도 않고 가장 어렵고 노력이 많이 드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점 등등 매우 아이러니한 사람이 바로 한성희 작가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했다. "후대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가?" 하는 즉흥적인 질문이었다. 여기에도 그의 답변은 단순했다.

"성실한 작가로 기억되고 싶다."

역시 한성희 작가다.

어둑어둑한 저녁이 되어 그의 작업실을 나왔다. 청사포의 바다는 이미 검게 변해있었다. 특별한 작가를 만난 특별한 하루가 저물어갔다.

Image of form _14.5×17cm, Mezzotint, 2024.

Image of form _18×26cm, Mezzotint, 2024.

Image of Image of form _20×15cm, Mezzotint, 2024.

■ 경남 통영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
■ 개인전(33회)
2020 GL 갤러리(부산)
2022 갤러리 공감초대전(부산)
2022 그림나무 갤러리 초대전(울산)
2024 M543갤러리 초대전(부산)
2024 루쏘갤러리(부산)
■ 단체전 (300여회)
■ 수상경력
2001 제1회 오늘의 작가상 본상
2011 제7회 송혜수미술상 수상 등
■ 부산판화가협회, 부산현대작가협회, 독립미술가협회, 한국미술협회, 부산미술협회, 부산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생명의 근원을 품은 삶의 구현

구상세계의 한계를 뛰어넘은 故백성도 유작전 40년 일대기 선보여

서양화가故 백성도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현상을 그대로 재현해 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여타의 구상작가들과 달리, 조형대상의 원형을 핵심으로 표현하면서도 내면의 의식을 접목하는 작업을 보여주었던 고 백성도 작가의 유작전 〈그 너머로 가는 길: 인류 역사 삶의 풍경을 그리다〉이 지난 1월 7일부터 21일까지 석당미술관에서 열렸다.

백 작가의 작품에서는 나이프 작업과 독보적인 색감으로 층층이 쌓아 올린 마티에르가 눈에 띄는데 이는 그가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깊은 증량의 무게감과 화면구성 간의 조형의 구상 범주를 뛰어넘은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구상미술 작가들의 상호협력과 친목을 도모하고 후진양성 등 미술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된 '목우회'의 초기 구성원 중 하나로써 한국 구상회화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구성원이다. 더불어 '동맥회'는 동아대학교 교수 재직시절 만들었던 동문전의 일환으로 동맥회를 창설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그의 모교이자 살아생전 동아대학교 교수로서 35년간 후학을 양성하며 재직했던 미술학과, 석당미술관이 뜻을 모아 기획한 전시로서, 백 작가의 일생을 응축한 초기 작부터 근래 제작되었던 미발표작을 포함한 200여 점의 유화, 드로잉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었다.

블_162.2x130.3cm, 캔버스에유채, 2022.

백 작가의 새로 고치고 다듬고 표현해 보며 반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온전한 자신의 색감과 표현을 쌓아올린 독특한 기법과 삶의 흔적에 따라 변화된 작품 양상을 통해 그의 예술을 향한 열정 및 한국미술 분야에 끼친 영향을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아버지의 길을 이어 가고있는 백근영 작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작품에 대한 전체 이미지, 개념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결과적으로 무사히 전시가 오픈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고 보람찬 순간인 것 같다. 직접 만든 아카이브 초본을 시작으로 부산 시립미술관과 전국 미술관에서 아버지에 대한 작품세계 및 한국미술 분야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가 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문명과 우주로부터 스며든 상상력의 프리즘

Docking_1, 134x260cm, acrylic on canvas, 2023.

회화적 상상력이 운집된 공간 속 휘몰아치는 층위의 궤도

서양화가 고석원

지난 12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서면에 자리 잡은 범향갤러리에서 고석원 작가의 25년간 작품세계를 정리한 화집 출판기념 초대 개인전이 열렸다. 이번 전시는 100호 캔버스 14개를 연결하여 작업한 대작 1점과 총 15점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 주제 역시 과거부터 이어져 온 'Docking' 시리즈로 만남을 통해 서로 보이지 않는 연결에 의해 세상이 구성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계속해서 서로 결합하고 결합하면서 또 다른 형상이 만들어질 것이며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무한 증식의 개념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11m 크기의 대작을 중심으로 20년을 연결하여 완성한 작품 일부를 소개하는 전시로 의미를 더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최대한 붓을 쓰지 않고 에어브러시에 의한 작품 제작의 연구 성과로서 에어브러시의 사용으로 경계가 불분명하여 모호하게 만들었다. 금속 구조처럼 섬세하고 정교하며 이는 마치 공상과학 세계처럼 기하학적인 형태와 정밀한 묘사들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화면 속 복잡한 구조적 유기물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소재들은 진화되어 온 문명의 시간만큼 치밀하게 직조되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상상력에 기반 한 각종 생명체의 형상은 끊임없이 창출되어 우주같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시각적 공간차원으로 강렬하게 이끈다. 고 작가는 본인도 예측할 수 없는 상상의 현대 신화로부터 귀결되어 만남을 통해 서로 보이지 않는 연결에 의해 세상이 구성되어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20년간 연결하여 완성한 100m 작품의 일부를 소개하며 최대한 붓을 쓰지 않고 에어브러시에 의한 작품 제작의 연구 성과로서 무한 증식의 개념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다. 에어브러쉬의 사용으로 경계가 불분명하여 모호하게 만들어 마치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삶의 의식이 깊이 베어든 상징적 이미지

전통적인 민화를 기저에 둔 현대성과 상징성 담아

민화물화작가 고경숙

2008년부터 기림아트 민화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민화의 홍보와 후진 양성에 힘쓰며 지난 2016년, 2022년, 2023년 부산민화협회 회장직을 맡으며 90명의 회원들과 함께 정기전, 소품전을 진행하며 활동 중인 고경숙 작가의 개인전이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린다.

'민화는 선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끝난다'고 말하는 고경숙 작가는 2003년 불화를 시작하면서 민화가 불화작업의 방법, 재료들과 비슷해서 그길로 민화책을 구입하여 초를 만들고 한자를 배접해서 작업을 했다. 처음에는 전통 민화로 시작하여 점차 현대, 창작 민화로 연구 개발해 나가고 있다.

'무지개민화작가 고경숙 개인전'을 부제로 열릴 이번 전시는 전통 민화, 현대 민화, 창작 민화의 400cm×170cm 크기의 병풍으로 흐름을 볼 수 있다. 전통 민화는 전통 그대로 재현했지만, 현대 민화와 창작 민화는 기본초의 변형이나 다른 채색방법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무지개를 접목한 40여점의 작품을 한자리에 선보인다.

책가도 8폭을 재현한 전통 민화의 경우, 조선 후기 장한종 화가의 작품으로 현존 최고의 수준으로 꼽는 책가도로서 책, 도자기, 문방 등을 기물로 원근법적용, 음영법으로 그려낸다. 낙도(쌍용)(40cm×80cm) 현대 민화는 전통 민화의 기본 초에 빨간색 한지 파란색 한지를 반반으로 한 바탕에 금선으로 민화주제를 그려 부분 채색한 후에 몇군데 무지개 색을 포인트로 넣어 전통 민화와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창작 민화작품은 130cm×100cm의 무지개 연화도 연꽃을 주제로 모든 부분을 직선으로 도안하여 꽃이나 잎 주위를 무지개 색을 접목시켜 나타낸다.

낙도(쌍용) _40cm×80cm, 색한지, 금분, 분채, 봉채, 2024.

"올해 2월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마이랑이 아트센터에서 전시를 열어 뜻 깊었다. 특히 금련갤러리에서 열린 이번 개인전은 20년 넘게 꾸준히 해 온 과정들을 선보이는 자리라 뿌듯한 마음이다. 보는 이들도 행복함을 느끼고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지금껏 해 온대로 후진양성과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 갈 것이다. 부산민화협회의 창립회원으로서 민화작가들의 선호도 1위인 단체가 되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라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전했다.

자연의 비가시적 질서와 생명의 화음

자연풍경을 이루는 섬세한 변화와 풍부한 감각 화폭에 그려내

수채화가 박영숙

직관적이고 우연적인 효과를 통해 창작의 자유로움을 느끼며 구상적이고 사실적인 수채 기법에 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박영숙 작가의 첫 개인전이 3월 11일부터 16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자연 그리고 휴식'이라는 부제로 자연 속에서 행복을 찾고 아름다운 순간을 화폭에 담아낸다. 세밀하고 정교함을 지닌 아르쉬 종이에 자연의 풍경을 수채화물감으로 섬세하게 표현한 100호 규격의 작품 50점을 한자리에 선보인다.

박영숙 작가는 수채화만의 풍부한 감각과 자연의 미세한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자연의 고요함과 휴식이 어우러지는 순간을 포착하여 종이 위에 물의 번짐을 통한 자연스러운 흐름과 깊이를 표현했다.

화폭 속 자연풍경을 이루는 수많은 생명 존재가 펼치는 조화로운 세계로부터 교감해 온 박 작가는 자연의 소리, 보이지 않는 조화와 공생의 질서들을 독자적인 조형적 변주로 풀어내고 있다. 그의 수채화는 사실주의적 풍경에서 하나의 소재적 대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또한, 자연에 대한 외경심과 이입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의 풍경화에 대한 주관적인 현장 감흥이나 표현의 방식은 물에 의한 작품 제작의 연구 성과로서 에어브러시의 사용으로 경계가 불분명하여 모호하게 만들었다. 금속 구조처럼 섬세하고 정교하며 이는 마치 공상과학 세계처럼 기하학적인 형태와 정밀한 묘사들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화면 속 복잡한 구조적 유기물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소재들은 진화되어 온 문명의 시간만큼 치밀하게 직조되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상상력에 기반 한 각종 생명체의 형상은 끊임없이 창출되어 우주같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시각적 공간차원으로 강렬하게 이끈다. 고 작가는 본인도 예측할 수 없는 상상의 현대 신화로부터 귀결되어 만남을 통해 서로 보이지 않는 연결에 의해 세상이 구성되어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20년간 연결하여 완성한 100m 작품의 일부를 소개하며 최대한 붓을 쓰지 않고 에어브러시에 의한 작품 제작의 연구 성과로서 무한 증식의 개념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다. 에어브러쉬의 사용으로 경계가 불분명하여 모호하게 만들어 마치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물에 비친 보석 _50호, 종이에 수채, 2022.

물감이 종이에 스며들어 투명하고 맑은 효과를 살려 사실에 충실한 생명의 이미지로 심적 평안을 연결해 자연을 관조하고 있다.

이처럼 박 작가의 그림들은 생명의 흐름이 우리나는 자연의 변화 양상을 탐구하며 색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수채화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과 심미성이 작품세계를 아우르고 있다.

박 작가는 "대학원 시절 개인 작품 발표회를 제외하고 수채화로서는 첫 개인전을 여는 것이라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듯한 느낌이다. 비록 사람들이 수채화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수채화가 가진 아름다운 조화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믿는다.

앞으로 수채화가 예술의 영역에서 더 큰 발자취를 남기고 그 작품성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라며 이번 전시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박 작가는 여러 번의 시도를 거쳐 자연이 지닌 색 그대로가 아닌 그만의 독창적인 색과 감성을 담아내기 위해 자연을 더욱 깊이 있게 그려나갈 것이다.

부산미술 단체를 찾아서 30

「(사)대한민국 남부국제현대미술협회」 Since 1964

서로 다른 지역적 특성을 담은 현대미술 작가들의 융합과 새로운 면모를 보이다

제40회 남부미술제가 열린 조이갤러리에서 찍은 오픈식 단체사진.

사단법인 대한민국남부현대미술협회는 현대미술의 격랑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며 과거의 시대를 넘어 기나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대표적인 미술단체 중 하나이다.

1984년부터 2025년까지 41년에 걸친 근현대 미술의 역사와 속에서 대한민국남부국제현대미술제(Nambu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Festival)는 사단법인 대한민국남부국제현대미술협회의 운영 아래 본연의 정체성을 확장하고 미술의 지평을 열어왔던 시대정신을 보여주며 해외 작가를 포함한 전국의 작가들과 함께 꾸준히 교류전을 이어오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남부현대미술협회가 주최하는 남부현대미술제의 시작과 배경에는 1980년 중반 이후, 해외 개방정책과 국제화의 물결에 힘입어 미술계에도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부산과 광주를 대표하는 미술 단체들의 활약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기였다. 1963년 기존의 부산 문화지형에 불을 지피듯 김종근, 김동규, 김홍규, 박만천, 김종철 5인에 의해 출발한 부산의 혁(爀)동인회와 1964년에 출범한 광주의 에뽀끄가 있다.

1980년대는 각종 미술제의 춘추전국시대로 불리우며 국제 전시의 확산과 함께 문화 교류와 소통의 공간 창출을 목적으로 성행했다. 이 시기에는 특히 한국 미술계의 이념과 지역적 차이가 생겨나면서 대립과 반목이 증폭되는 시기였으며 세계 문화 속으로 편입되는 과정이 서구로 향하는 세계화의 고정을 거치며 미술의 새로운 환경을 구축해 나갔다.

1984년 출범한 '남부현대미술제'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현대미술제'를 시발점으로 지역마다 현대미술제가 연이어 탄생하였다. 그 구성원와 운영 실태가 유사하여 전국의 현대 미술인들이 여기저기 자리를 옮겨 발표하는 추세였다. 그러므로 미술제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점차 소멸되는 과정에서 '서울현대미술제'와 지방의 '남부현대미술제'로 이원화 되었다.

1985년 '광주현대미술제'에서 부산의 '혁'과 광주의 '에뽀끄', 제주의 '관점'들이 각 지역의 현대미술제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발전적으로 현대미술제의 해산과 동시에 바다를 접하고 있는 제주, 부산, 전남, 경남의 현대미술제 운동을 하는 작가들로 '남부현대미술제'를 만들어 중앙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남부 문화권을 형성하자는 뜻을 모으게 되었다. 또한, 매년 여름에 개최되고 있는 미술제는 그것 또한 뜨거운 계절과 남부라는 이름과 연관된다.

1980년 중반 이후, 해외 개방정책과 국제화의 물결에 힘입어 미술계에도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특정한 형식과 매체를 벗어나 개인의 내면세계나 시대적 담론을 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참여를 시도하고 대중과 소통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도에 부산의 허종하 혁동인 회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하는 방식으로 승낙을 얻었으며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얻어 법원의 등기와 함께 정식 등록을 마치게 되었다. 그간의 전시 이력과 역사성을 그대로 계승 유지하여 법인인 창립전을 2007년 울산에서 개최하게 하였다.

남부 회원들의 열정과 선배 작가들의 정신이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하며 현대미술이라는 대개로 세계 각국의 작가, 국내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현재까지 그 정체성을 이어오며 불혹의 나이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현재 운영위원회가 진두지휘하며 각 지역마다 운영위원을 두고 회장은 전람회를 개최하는 주최 측에서 맡게 된다. 운영은 매회 출품 작가들이 현지에 참가하여 개회 전야제를 연다. 전회원이 참가하는 리셉션에서는 경과보고와 각 지역의 정보 교환과 함께 다음 개최지를 선정하고 전시장에서 우의를 다지고 단합을 도모한다. 또한, 참가 작가 선정은 전시장의 사정에 따라 수가 조정되어 각 지역에 배분되고, 각 지역 운영 위원은 작가를 선정하여 추천한다.

이처럼 '남부현대미술제'는 중앙 화단의 독선에서 벗어나 지방 작가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람회로서, 재현적 미술에서 탈피하여 이것이 미술인가에 대한 담론성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와 형식이 반영된 대표적인 현대미술제로 발전하고 있다.

동시대 미술의 흐름 속에서 남부미술협회가 보여준 미술의 흐름과 양상은 예술적 열정을 쏟아 왔던 선배 원로 작가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후배 작가들이 증지를 모아 발전적 모색을 해왔던 남부현대미술제가 한국 미술계의 중요한 역할과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며 공신력을 확보하여 한국미술을 선도하는 단체로 거듭 날수 있었다.

앞으로도 사단법인 대한민국남부현대미술협회는 예술적 토양의 발전적 동력으로 작동하며 급변하는 한국 미술의 주요 흐름과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미학적 관점을 벗어나 동시대 미술 역시 다양성 포용과 확장성을 가지며 다채로운 실험과 현대적인 주제에 관한 지속적인 탐구가 진행될 것이다.

컬렉터 집중분석

– 스물여섯 번 째 이야기

김성헌
학술평론분과 회장

이 코너에서는 미협회원들의 작품 컨셉 연구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미술사에 남게 된 위대한 예술가들의 개념과 관련된 자료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소개되는 이러한 자료들을 필자와 함께 공부하는 컬렉터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밝힌다.

"나는 우리가, 미술사의 다음 장(章)인
디지털 예술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고 믿는다."
– 비플(Beeple) –

좌) 가상현실계의 아버지로 불리는 재런 러니어(1960년~),
우) 「가상 현실의 탄생」, 재런 러니어 저/노승영 역/열린책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류가 배출한 시대 시대정신 읽기 2 - NFT, 21세기의 주역 MZ세대가 선택하다!

를 앞서간 천재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치렁치렁 레게머리를 하고 있는 미국인 재런 러니어는, 현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비주얼 아티스트·작곡가·작가 그리고 가상현실을 처음으로 고안하고 상용화하였다. S.F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가상현실을 구현할 때 착용하는 VR고글과 장갑을 1985년에 처음 고안하고 판매한 인물이기도 한 그는, 나를 대체하는 아바타를 개발하고 의료 수술 시뮬레이션 같은 가상현실 응용프로그램을 최초로 도입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하였는데, 그가 고안한 VR 고글은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하는 장치로, 애플이 발매한 V-Pro 고글을 시작으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앞다투어 양산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재런 러니어는, 메타버스에 열광하는 MZ세대 그리고 나아가 알파(α) 세대까지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당대의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비교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 그 785억 원에서 경매비를 제외한 전액을 작가인 비플이 받았다는 것이다. (그날 경매에는 제프 쿤스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들도 경매되었는데, 그 작품들 판매가는 경매에 내놓은 수집가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작가들은 단돈 1달러도 받지 못했다)

출품한 비플의 작품은 NFT(Non 'Virtual Reality=Real Life' –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해라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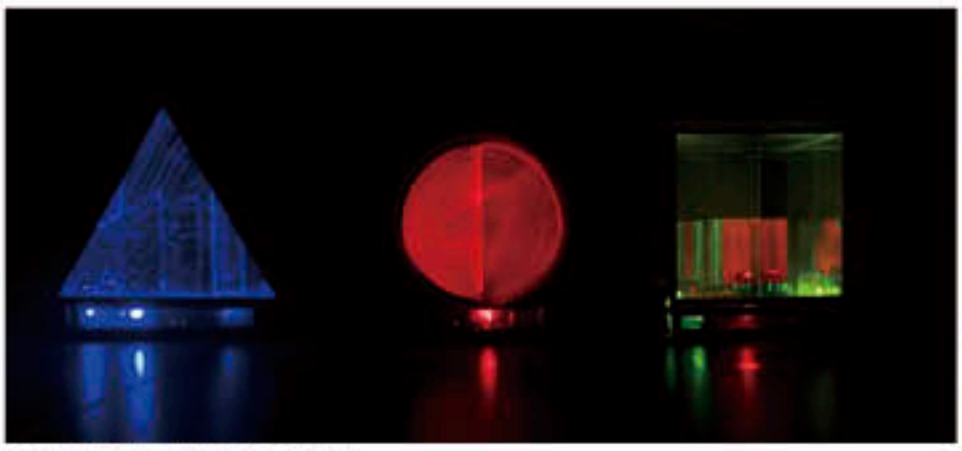
Fungible Tokens:대체 불가 토큰) 디지털 그림으로, 메타버스 세계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NFT는 작품과 구매자의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암호화한 기술로, 거래 기록이 자동 저장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과 개념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미술시장에서 급부상한 MZ세대와 다가올 알파 세대의 세계관을, 시대를 앞서갈 작가라면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분야에 뛰어들지 못할지라도 이해는 하고 있어야, 현재 시작된 미술계의 흐름과 미래의 대세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다.

Virtual Reality=Real Life라고 필자는 또다시 강조하고 싶다. 변화를 주도하지 못한다면 변화를 읽기라도 해야 한다. 노벨상 시상식이 끝난 직후,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에서 열린 노벨상 연회에서 작가 한강은 문학을 '언어의 실에 비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로 연결해 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를 다루는 문학은 필연적으로 일종의 체온을 지니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상의 불꽃 응원 봉을 들고 차가운 거리에 나선 MZ세대를 떠올릴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가상현실이 곧 실제의 세계이니, 쉽게 꺼지는 촛불보다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차가운 응원 봉의 불빛이 희망봉의 깃발인 것이다.

좌) 비플, 〈매일 첫 5000일〉 크리스티에서 785억 원에 낙찰. 우) '매일 첫 5000일' 중 한 작품.

백남준, 백남준, 그리고 백남준

Nam June Paik, Nam June Paik, and Nam June Paik



TV 부처, 1974.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삼원소, 1999.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제법 쌀쌀해진 날이지만 하늘만큼은 맑다. 찬 바람에도 전시를 찾아 작품 앞에서 몰입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올숙도에 있는 '부산현대미술관'에서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백남준, 백남준, 그리고 백남준》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영상, 비디오, 설치, 사진 등 관련 자료 160여 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예술가로서 그의 예술적 도전을 조망하는 대규모 회고전이다.

이번 전시는 크게 총 3부로 나누어진다. 1부는 "나의 축제는 거칠 것이 없어라 : 1960년대 초반~1980년대 중반", 2부는 "필름 속의 백남준", 3부에서는 "백남준의 세계 : 1980년대 후반~2006년"이 이어진다. 먼저 2층에서부터 전시를 보고 1층으로 내려와서 3부로 마무리하면 좋을 듯하다.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대형 작품들이 1층에 전시되고 있다.

케이지의 숲-숲의 계시, 1992-1994./울산시립미술관 소장.

2층에서 시작하는 전시는 통로 안쪽에 있는 비디오 작품 〈손과 얼굴, 1961〉인데,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손으로 얼굴을 어루만지는 청년 백남준이다. 다음 전시장에는 빨간 바탕을 배경으로 시작되면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플럭서스(Fluxus)를 시작으로 비디오 아트를 개척한 시기를 넘어 기계와 인간의 공존을 담은 작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로봇 K-456, 1964(1996)〉는 백남준이 1963년 독일에서 첫 개인전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 여러 엔지니어와 교류하며 전자공학을 연구하던 시기에 제작되었다. 20채널로 원격 조종되는 로봇으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8번 B플랫 장조'의 쾨헬 번호 456을 작품 제목에 붙였다고 한다.

〈달은 가장 오래된 TV, 1965〉는 비디오 기술을 활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한 공간 안에서 느낄 수 있다. 모니터 13대를 줄지어 배치해 놓고, 그믐달부터 보름달까지 주기에 따라 바뀌어 가는 달의 모양을 투사한 작품이다. 이 설치작품 앞에 또 다른 작품인 〈TV 부처, 1974〉가 있는데 백남준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부처상이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는 형상으로, 명상하는 부처가 TV를 통해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꽤장히 묘한 분위기의 작품이다. 시각적이며 감각적으로 백남준의 예술적 철학을 엿볼 수 있다.

2부에서는 백남준에 대한 영상과 영화를 보여준다. 전시의 묘미 중 하나가 따로 개설된 2층 '영화관'이다. 미술관 안에 이렇게 극장이 있어서 요일마다 다른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여유를 가지고 관람해 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 〈글로벌 그루브, 1973〉,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 2023, 영화〉 외 10개의 작품이 상영되고 있다.

1층에서, 3부 "백남준의 세계 : 1980년대 후반~2006년"이 이어진다. 'TV 로봇시리즈'는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가족에 비유한 '로봇가족 시리즈'인데 교과서에서 보던 백남준의 대중적인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케이지의 숲-숲의 계시, 1992-1994〉 작품은 8m 높이의 나무가 숲을 이루며 나뭇가지에는 모니터들이 매달려 있다. 자연의 생명력과 그의 예술적 스승인 존 케이지(John Cage, 1912-1992, 미국)의 다양한 영상들이 보인다. 〈걸리버, 2001〉는 바닥에 누워 있는 거인 '걸리버'인데, 총 길이가 4m가 넘는 거대한 로봇이다. 그 주위를 둘러싼 18개의 소인국 로봇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삼원소, 1999〉는 1997년부터 3년여에 걸쳐 만들어진 백남준의 세 가지 레이저 작품 '원', '삼각형', '사각형'이다. 레이저를 이용해 '천지인'의 사상을 형상화했으며, 이 세 가지 기하학적 도형은 한국 전통문화에서의 '원방각(圓方角)'임을 짐작할 수 있다. 도형이 신기했는지 호기심 가득한 학생들이 많이 관람하고 있었다. 〈108번뇌, 1998〉는 8·15 광복과 한국전쟁의 잔상, 전통 부채춤과 승무, 당시 대중문화를 대표했던 서태지와 아이들 등 108개의 모니터를 통해 동시대의 문화적 장면 등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전시 관람을 모두 마치고 출구로 나와 카페 쪽으로 가면 〈코끼리 수레, 1999-2001〉를 만날 수 있다. 과거의 오브제들과 새로운 매체가 혼합된 이 작품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의 시대에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통신이 전파되는 방식을 재고하게 한다.

백남준(1932-2006)은 대중매체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본 최초의 예술가였다. 예술의 권위를 해체하고 경계를 허물며 사회적 금기에 도전하고자 했다. 기술 미디어 시대에 대한 낙관적 비전의 중심에는 늘 인간이 있었다. 그는 기술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연결과 확산을 통해 지역과 시대, 종교와 사상을 초월한 소통과 융합을 꿈꾸었다. 1984년에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시작으로 위성기술을 이용한 텔레비전 생방송으로 전 세계가 예술로 소통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항상 새로운 매체와 예술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로 누구보다 미래를 선명하게 내다본 아방가르드(avant-garde) 예술가다. 이번 전시를 통해 기술과 예술을 넘나듦과 동시에 미디어아트의 개척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전 세계 미술계의 흐름을 주도한 혁신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진정(眞正) '백남준'이지 않을까.

문화의 경험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안다. 이 바깥세상에서 어떻게든 자투리 시간을 내어서라도 미술관에 가는 것, 그 자체가 예술의 문화를 누리는 소중함이 있기 때문이다. 미술관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림을 보고 즐기는 인생이라면……

학술평론분과위원 진수아

▲ 주소 : 부산현대미술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191(하단동) ▲ 전시명 : 《백남준, 백남준, 그리고 백남준》 ▲ 전시기간 : 2024. 11. 30 (토) – 2025. 03. 16 (일). 무료관람 ▲ 관람시간 : 화요일–일요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 전화 : 051-220-7400-1, 주차가능 ▲ 교통편 :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에서 버스: 3, 55, 58, 61, 124, 128-1, 161, 171 서틀버스: 편도(미술관 → 하단) 운행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주목할 예술가'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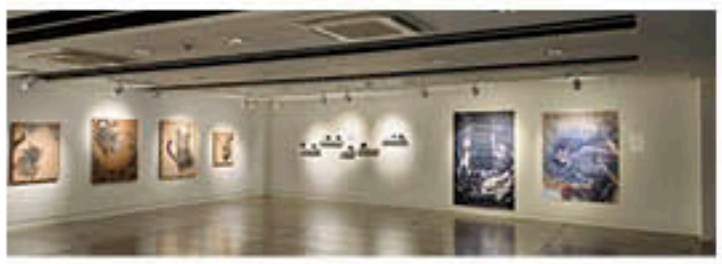
영상설치가 김지오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44회 올해의 최우수예술가'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6일(금) 오후 5시 서울 인현동 피제이호텔 카라디움홀에서 열렸다. 자유로운 예술 장착 정신을 존중하고 10대부터 80대에 걸친 예술계의 의미 있는 작업을 하는 예술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지역 예술을 꽃피우고 있는 예술가, 전도유망한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왕성한 예술 활동을 해온 예술가들을 지지해 왔다. 1980년 창립되어 예술비평의 본보기가 된 한국예술평론가협회는 5개 영역, 12개 부문의 공한예술가, 최우수예술가, 심사위원 선정 특별예술가, 주목할 예술가, 청년예술가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주목할 예술가에 전방위적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김지오 작가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논리의 시각화를 실천하는 개념미술가로 불리는 김 작가는 자신의 관심사에 부합한 매체를 찾아 멀티미디어로 제시하기를 유희적으로 즐기는 실험가이다.

김 작가는 미래 사회의 의·공학 기술의 하나로 '감각성형'이라는 인간의 감각을 전자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견하며 미래에 감각성형을 시술받은 사람들 중의 한 명의 고백과 그에 대한 연구와 가공한 회화, 설치, 영상 작업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 세계관을 거시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용두산 미술의 거리·부평아트스페이스 입주작가 초대展



레지던시 입주작가 초대전이 지난 1월 1일부터 13일까지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열렸다.

지난 2024년 부산미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심사 면접을 거쳐 1년간 활약한 사)부산미술협회 예술창작공간 용두산 미술의거리와 부평아트스페이스 레지던시 입주작가 초대전이 지난 1월 1일부터 13일까지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Objective: 9개의 궤적, 하나의 방향을 부재로 하여, 사)부산미술협회 레지던시 작가 초대전은 작년 한 해 모집 공고를 거쳐 선정되었던 9명의 작가들이 모여 마지막 단체 기획전으로 진행되었다. 각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작가들이 되고자 본인의 위치에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응원의 의미를 담아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진행되었다.

용두산 미술의거리의 박지언(공예), 안수진(한국화), 윤연정(한국화), 이규열(디자인), 이수아(공예), 정소영(공예) 입주작가와 부평아트스페이스 배하림(서양화), 손효진(서양화), 이승훈(디자인) 입주작가들의 창작 작품들로 전시장을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입주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 선보이며 그들이 지향하는 경계와 예술성은 다르지만, 예술이라는 영역을 아우르며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세계를 조명했다.

칼 럼

감각의 정점과 분해, 소소한 개인주의 그리고 인사이트 로컬리즘

21세기 동시대 미술과 문화는 대변혁의 한가운데 서 있다.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감각의 정점, 해체의 절정 혹은 식상함, 그리고 분해의 시작이라는 복합적인 시대적 전환점에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소소한 개인주의라는 사회적 현상이 새롭게 부상하며, 미술과 문화를 이해하는 필수적 관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1. 감각의 정점과 해체

현대 미술은 감각적 자극의 극대화로 가득하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 자극적인 비주얼과 퍼포먼스, 그리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술적 실험이 우리의 감각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은 AI를 수반한 미술이 본격적으로 침투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AI 창작이 시도되어 왔지만, 이제는 미술 시장과 전시 형식 전반에 걸쳐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감각의 과잉은 역설적으로 무감각을 초래한다. 2000년대 이후 "해체"라는 화두 속에서 가벼운 자극과 근본 없는 실험들이 하나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감각은 정점을 지나 해체로 전환되고 있다.

예술은 단순한 감각적 경험을 넘어 다시 본질적인 가치를 탐구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백남준(Nam June Paik, 1932-2006)의 컨셉추얼 아트가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질문하며 예술의 근본적인 의미를 재조명했던 것처럼, AI가 개입된 예술도 인간의 내면과 감각의 본질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AI 아트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창작의 개념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2. 분해와 근본으로의 회귀

감각의 정점이 식상함으로 이어질 때, 필연적으로 분해의 과정이 시작된다. 이는 거대 담론의 해체와 개인적 경험의 분리로 나타난다. 파편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은 다시 근본적 가치를 찾고자 하며, 이는 고전의 재해석으로 이어진다.

예술에서 이러한 회귀는 과거의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현재의 맥락 속에서 고전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AI 기반 생성 예술이 증가할수록, 손으로 직접 그린 회화나 전통적 조각 작품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디지털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인간이 만든 원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흐름은 고전이 담고 있는 인간 본성의 보편적 가치와 연결된다. 그리스 비극의 구조가 동시대 영화와 드라마에서 여전히 살아 있는 것처럼, 예술의 본질적인 가치 또한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마스터피스'라는 개념은 단순한 역사적 유산이 아니라, 지속적인 해석과 재조명을 통해 동시대적 의미를 획득하는 존재로 변모한다.

3. 소소한 개인주의의 부상

거대 담론의 쇠퇴는 소소한 개인주의라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을 낳았다. 개인의 일상적 경험과 감정이 동시대 미술과 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셜 미디어의 발달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며, 예술 또한 개인적 서사와 내밀한 감정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강(Han Kang, 1970-)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이러한 흐름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녀의 작품은 한국적 정서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보편적 인간성을 탐구하며,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지역적 이야기 또한 세계와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술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이 두드러지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소한 이야기들이 점점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거대 담론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개인의 감정, 기억, 일상의 순간을 기록하는 예술이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 이후의 미술은 개인주의적 감성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 내밀한 작업들이 더욱 주목받을 것이다.

4. 인사이트 로컬리즘: 지역성과 글로벌 소통의 교차

소소한 개인주의의 부상과 함께, 인사이트 로컬리즘(Insight Localism)이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시대는 국제적 소통을 평준화했지만, 동시에 각 지역과 국가의 독창적 통찰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부산의 회화 전통을 예로 들면, 1980년대 신형상주의에서 출발한 부산의 회화는 2000년대 이후 디지털 시대의 강렬함과 매체의 다양성과 결합되며 독특한 로컬리즘을 형성했다. 이는 단순한 지방적 특성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 속에서 지역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감각적 실험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미술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 흐름 속에서도 각 지역의 고유한 미술적 언어가 부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트렌드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다.

5. 동시대 미술과 문화는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가?

동시대 미술과 문화는 감각의 정점에서 해체, 분해, 근본으로의 회귀, 그리고 소소한 개인주의로 이어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거대 담론의 종말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개인적 서사와 지역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결국, 현대 미술과 문화는 더 이상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를 묻지 않는다. 대신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개인적 경험과 지역적 정체성, 그리고 소소한 것들 속에 숨겨진 보편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단순한 감각의 자극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감각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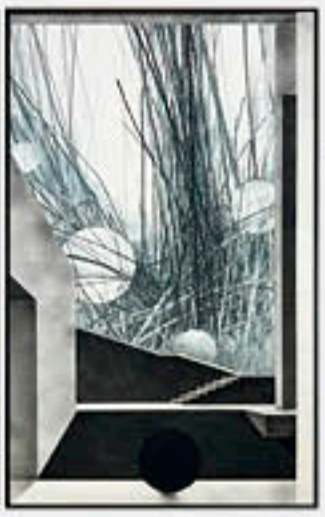
김종원 (예술평론분과 위원)

Close Up 32

어둠을 밝히는 빛, 희망을 밝히다

청년작가 박영환

자나온 세계에 서서 _260.6x193.9cm, 한지에 먹, 2024.



반추 _89.4 X 145.5cm, 한지에 먹, 2024.

선행적으로 흘러가는 삶의 궤적

희어지는
눈이 내린다.
닿으면 사라져 버리는 연약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눈이 내린다.
걸음을 멈추고,
바람 속에 희어지는 것을 보았다.
어쩌면 사라진다는 것은 흔적이
아닌 무게

우리는 서로를 떠나고, 녹아버린
발자국
나는 이제 그것을 붙잡을 수 없다.
붙잡을 수 없는 것들로만 가득 찬
세상에서 기꺼이 뻗어내는 손은
그래도 기억하기 위한 것.

넌 하얗게 웃었다.
티 없는 마음으로,
눈을 멀게 했던 빛나는 섬광,
타오르며 추는 춤.

우리는 왜
남겨진 것들을 애도하면서도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는가

하얗게 덮인 세상 위에,
생애 한 구석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너와 나와 우리의 모든
사라질 것들이 함께 서 있어.

이제 우리 걷자, 다시 춤
을 추자.
눈이 내려요.

내 작품 속의 구체는 삶이자 그 속의 인과관계이다.

과거로부터 현재, 현재로부터 미래로의 유기성을 담은 구체는 여러 가지 경계 속에서 존재한다. 작품 속에 등장한 '구'는 처음에는 나의 기억이자 감정 같은 것들의 덩어리로 작품 속에 등장했다. 놓쳐버린 많은 순간들이나 잊혀진 기억 같은 것들이 어김없이 피어날 때, 늘 나는 그런 순간들이 그리웠다. 섬광 같은 순간들이 기억으로만 내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온전히 그 시간들을 다시 반추할 수 있었다.

그렇게 작품 속의 '구'는 내 작품의 일부가 되었다. 회화 속에서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창은 과거와 현재의 경계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창 안의 감정 구체들은 현재의 삶이며 창밖의 뿌연 구체는 과거가 되어버린 현재였던 삶들인 것이다. 자나온 삶의 궤적은 창밖의 풍경으로, 자연의 소재들은 나의 감정을 투영시키는 그릇의 역할로 화면 속에 연출되었고, 이로써 풍경들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된다.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지나온 수많은 현재는 희미한 구체로서 화면에 자리 잡고 있다.

관람자로 하여금 창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점의 구도는 구체에서 개인으로서의 삶의 회고를 암시한다. 창밖 풍경 속에 희미한 구체들을 통해 다시 현재였던 경계 지점으로 돌아가며 내 작품에 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눈이 내려서 세상이 희어지고 다시 녹아가는 것들이 기억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작품 속에서 내리는 눈은 지나간 순간들을 덮고 있는 시간이며, 한자에 스며든 먹을 지워내는 표현 기법을 통해 지나간 순간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지금의 내 작품은 비로소 지나간 것들을 통해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2024 흰 (맥화랑/부산)
2023 우리가 자나온 세계에 서서 바라본 세상은 고요한 낮과 밤으로 우리를 지새우고(전시 공간 영영/부산)
2022 물이 마르기 시작할 때 (현대미술회관/부산)

가시화된 세계의 동적인 상상

1월 18일까지, M543

공예가 전광수

지난 12월 10일부터 1월 18일까지 M543에서 전광수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다. 이번 전시는 커피 잔, 잔 받침, 주전자의 Combination & Retro 이미지를 해체하고 결합한 콜라주 기법과 도판, 대형접시 위의 전사 작품 'Tea-party Combina tion' 9점, 'Cera-Collage 2024' 25점, 총 35점의 공예 작품을 전시했다.

작가는 원하는 이미지 표현을 위해 기본 대지 위에 클래식 영화의 장면, 옛날 자동차, 기차, 요트, 우표 등의 다양한 레트로 이미지들이 주된 요소로 화면을 차지한다. 그 사이 공간에 현대의 기호학적 요소를 가진 코드와 문자 등을 부재로 배치하고, 여성의 얼굴, 나비, 꽃 기타 사물들을 찢거나 오려 붙여 원본을 재작한 후 OHP 필름에 스캔한다.

직접 실크스크린으로 전사자를 제작한 후 대형접시, 도판, 토루소 등에 전사하여 850도로 3벌 소성한 작품들은 로맨틱한 영화에서의 휴머니티와 감성을 담아내는 장면들과 사물들이 혼재된 이미지들로서 여러 가지 기호들과 혼재되어 관람자들에게 과거에 대한 회상과 상상력 자극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Ballet 3_Dia _40cm, 백토, 유약, 전사지, 2024.

이처럼 전 작가의 낯선 조합, 용도가 해체되고 기능을 상실시켜버린 것들의 엉뚱한 만남과 부조리한 결합은 형상화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 이야기로 삶의 유희이자 자유로운 상상력이 담겨 있다.

결로 빚어 낸 도자기

1월 11일까지, 부산시청

서양화가 이황영옥

대상의 본질과 이해를 깊이 있게 나타내고자 시간과 공간, 물질과 색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며 자신만의 미적 경험과 감정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이황영옥 작가의 7번째 개인전이 지난 1월 6일부터 11일까지 부산시청 2층 제3전시실에서 열렸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붓으로 빚은 질감, 도자기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전통 도자기의 곡선미와 질감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려는 작업 방향성을 담은 총 30점의 유화 작품을 전시했다. 도자기의 고요한 아름다움과 세월의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캔버스 위에 새롭게 구현하고자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도자기의 형태와 질감을 유화 물감을 사용하여 두꺼운 물감층을 쌓고, 반복적으로 긁고 칠하는 과정을 통해 질감의 깊이를 재해석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며 대표작으로는 '백자호''호''병' 작품이 있다.

백자호 _20호, oil on canvas, 2024.

"이번 전시는 도자기의 곡선미와 질감을 평면 회화로 재해석한 작업의 특징을 관람객과 공유하는 자리이다. 두꺼운 유화 물감의 마띠에르를 활용해 도자기에 담긴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려 했다.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새로운 시각적 시도가 관람객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도자기를 주제로 한 작업을 지속하며, 전통적 소재의 아름다움을 현대 회화 언어로 재해석한 대작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마음을 잇는 밥

1월10일 ~ 3월2일, 카린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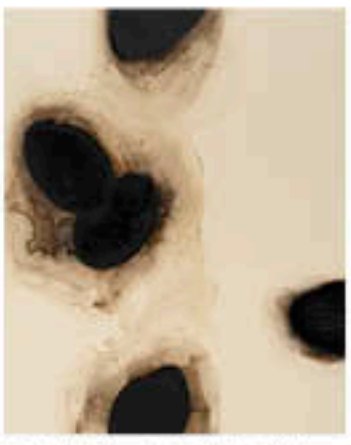
서양화가 박주호

'밥'과 '쌀'이라는 형상을 통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는 박주호 작가의 개인전이 지난 1월 10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카린갤러리에서 48일간 열린다.

이번 전시는 'Awareness'라는 부재로 하여, 즉, 알아차림의 의미를 가진다. 이번 개인전은 사발에 담긴 밥, 그리고 쌀알을 평면적으로 옮긴 올 오버 작, 그리고 색면 추상으로 크게 나뉘며 총 58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세 개의 다른 공간에 설치된 그림들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각기 다른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밥 형상을 차용해 마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그는 초기작에서는 밥 형상에 기반을 두고 표현하고 있으며 점차 나아가 마음이란 것의 모호함을 추상적인 표현에 집중하고 있다.

학부 시절 늦은 시간 집에 도착하면 늘 투정만 있는 막내에게 어머니는 한결같이 '많이 먹어라'는 말씀만 하셨고, 그 지점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보았고 그 마음에 대한 고민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동그리다-The flesh_90.9x72.7cm, oil on canvas, 2024.

박 작가는 "이번 전시는 지난 20여년의 내 그림을 모아보는 시간이었다. 내가 화가로서 어디쯤 서 있나하는 공부하는 전시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작업물은 주로 구상적 표현이 다수인데 추상적 표현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마음에 대한 더 면밀한 고민과 삶의 이야기에 진실되게 다가가 보고자 한다"며 전시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마음의 평온과 고귀한 혼을 찾아

2월16일까지, 범어사 성보 박물관

서양화가 김종호

現 해동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절영회 회장, 부산사생회 부회장, 선상회, 신우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호 작가의 제5회 개인전이 지난 2월 8일부터 16일까지 범어사 성보 박물관의 초대로 열렸다. 이번 전시는 '부처님 미소와 연꽃의 만남 : 사계(四季) 이야기'를 주제로 작업한 총 60점의 평면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였다.

불교 사상에 기반 한 작품들은 부처님의 인자한 미소와 진흙에 물들지 않고 고결한 풍모로 아름다움을 꽃피우는 연꽃처럼 스스로를 정화하며 마음속 꽃을 피우며 수행하듯 자신과 자연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났다.

김종호 작가는 "고흐는 평생 아름다운 빛을 찾아다닌 것처럼 나 또한 강렬한 빛의 그림을 좋아한다. 그는 삶의 고독과 절망의 연속 가운데 오직 창조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고 살아 있을 때 한 점밖에 팔지 못해 궁핍과 가난에서도 열정적인 그림을 그렸지만, 정작 나는 교직에 몸담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한 것 같다.

부처님 미소와 연꽃의 만남 1 _ 30호, 유화, 2024.

이제부터는 작가만의 그림과 색을 찾아 또 다른 그림의 여정을 시작할까 한다. 끝으로 범어사 주지 스님이시고, 성보박물관 관장, 해동중학교 이사장님이신 정오스님을 더불어 성보박물관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꽃 따라 빛 속으로

1월20일~26일, 부산시청 제1전시실

수채화가 홍수연

수채화의 맑은 색으로 보는 이들에게 밝은 에너지와 위로를 주는 그림을 그리고자 자연이 들어있는 풍경이나 꽃을 그리고 있는 홍수연 작가의 제2회 개인전이 지난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부산시청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꽃 따라 빛 속으로'를 부재로 꽃을 보면서 자연의 밝고 아름다운 빛과 색의 세상을 만나게 되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꽃을 중심으로 꽃이 있는 풍경, 꽃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8호에서 50호 규격의 작품들을 선보이며 밝은 빛의 수채화의 매력을 전하고 자연의 밝고 아름다움을 그려냈다. 홍 작가는 수채화의 기본 채색 방법뿐만 아니라 번지기, 뿌리기 등의 수채화의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의 효과를 나타냈다. 자연과 더불어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홍 작가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생명이 있다고 여기며 그 '생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림 수단으로 수채화를 선택했다.

측면잔치를 측하함 _ 116.8×91 cm, Water color on paper, 2019.

홍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서 밝은 미소를 짓는 것을 보며 저도 같이 미소 짓은 것이 좋았으며, 앞으로도 꽃을 도자기와 접목해서 꽃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사람들이 꽃을 주면서 축하, 사랑, 위로의 마음을 전하듯 제 그림에 그런 마음을 담고자 한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부산의 어둠은 머금던 빛을 피운다

1999년 부산항 _648.8x130.3cm, 캔버스에 유화, 1999~2025.

3월 5일부터 11일, 한새갤러리

서양화가 박용대

1999년 밤, 초량 산복도로에서 바라본 부산의 빛들에 크게 감동하여 10여 차례 '부산의 빛'이란 연작을 제작해 온 박용대 작가의 개인전이 3월 5일부터 11일까지 부산교육대학교 한새갤러리 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바다를 근원으로 아름다운 산세를 이루고 있는 화려한 불빛의 항구도시 부산을 회화의 기본적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형형색색의 불빛들 속에서 희로애락을 감지하고 우리 지역민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현장감과 공간감을 담은 30여 점의 유화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가 살아온 터전이기에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새롭게 바라보고 나날이 변모되어 가는 해양성 문화의 화려함을 실감하게 한다. 그 속에서 남아 있을 듯한 부산 지역의 정감이 묻어 있는 고유색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 작가는 "기존의 그림은 구도의 설정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조망에 가깝다면 앞으로는 시점을 낮춰 실제 우리 생활을 가까이서 바라보고 관찰한 그림을 작업해 보고 싶다"고 전했다.

제23회 부산기독미술협회 정기전

12월 24일~29일, 금련산갤러리

2000년 11월 서양화, 한국화, 판화, 조각, 서예 등으로 첫 창립전을 시작으로 예술세계가 담긴 작품을 통해 미술의 비전을 전하며 기독미술문화를 발전시키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기독미술협회 정기 회원전이 지난 12월 24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 열린 이번 전시는 故 강홍윤 선생님의 기증 작품 특별부스를 함께 마련했다. 더불어 부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는 작가들의 평면, 입체작품을 직접 마주하고 예술을 통해 희망이 있는 삶으로 참된 뜻을 이루고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예술작품을 통해 깊은 신앙심과 자신의 내면을 담아낸 작가들의 작품세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삶을 이롭게 하며 부산 기독미술문화를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작가적 삶의 태도와 정신을 바탕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했다.

(시계방향) 강홍윤 회백 기증작 내용 발췌, 전시장 사진, 전시 도록 표지.

제40회 동맥전 개최

1월 5일까지, 금련산갤러리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를 졸업한 동문들의 전시회가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5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렸다. 동맥전은 1974년에 창립되어 부산대파트 전시실에서 열린 창립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동문 간의 결속을 다지는 동문전으로써, 부산미술발전에 이바지하며 오랜 전통과 역사의 맥을 이어오며 작가로 살아온 선·후배와의 소통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동문전은 동문회원 60명이 참여하여 10호 내외의 바구상 계열의 평면작품으로 구성된 서양화, 한국화, 판화 작품 총 60점을 선보였다.

동맥회 이광준 회장은 "긴 세월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러한 자리에서 동문이 서로 소통하여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나아가 부산미술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며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시계방향) 전시장 및 오픈식 현장 사진, 제40회 동맥전 전시도록 표지.

2025 부산국제환경예술제 기획전 개최

2월19일~3월1일, mM아트센터 광복화랑

2000년 7월 글로컬리즘 미술운동의 첫 시작을 알린 부산국제환경예술제(BIEAF)는 용두국제환경예술제로 출범하여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전시를 펼쳐오고 있다. 이번 기획전은 2월 19일부터 3월 1일까지 mM아트센터 광복화랑과 바다갤러리의 협조로 아티스트들의 기량을 선보였다.

BIEAF는 환경자체를 다루는 환경개선의 운동보다 환경을 매개로한 예술운동의 방향성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BIEAF에 출품된 작품을 보고서 환경의 개념을 자연과 생태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그 예술적 환경에 대한 변화와 적응의 표현과 방법이 예술 언어로 나타나는 축제이다.

물류도시 부산의 역동적인 움직임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동하는 현대미술을 담아내는 2025년 제22회 BIEAF는 6월 공고를 시작으로 9월에 사이트를 오픈한다.

제21회 부산국제환경예술제 포스터.

제21회 물빛수채화 정기전 개최

3월 1일까지, 부산 시청 제3전시실

수채화 재료만을 바탕으로 정통 수채화를 추구하는 물빛수채화의 제21회 정기전이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부산시청 제3전시실에서 열린다. 모두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통 수채화를 바탕으로 10호 내외의 총 60여 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 기법을 확장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물의 농도에 따른 깊이감과 필연적인 연출을 통해 수채화의 정제함을 표현했다.

또한, 이번 전시는 회원 각자가 추구하는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바탕으로 구상, 비구상 등으로 자유롭게 나타냈다.

물빛 수채화 김옥련 회장은 "창립 21주년을 맞이한 본회는 회원 간의 소통과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그동안 꾸준히 도약하고 발전해 왔다. 앞으로 수채화가 지닌 아름답고 깊이 있는 매력을 널리 전파하고자 새롭고 창의적인 형태의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5년 물빛수채화 대표작품 사진 및 작년 정기전 전시도록 표지.

제20회 부산환경미술협회 정기전 개최

3월10일~15일, 부산시청 2, 3전시실

제20회 부산환경미술협회 정기전 〈환경에 대하여〉가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부산시청 2, 3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환경과 미술'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를 통해 오늘날 환경을 다시한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예술을 통한 아름다움의 창조활동으로 환경문제 및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부산환경미술협회는 부산의 미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와 유자를 미술작품을 통해 홍보하고자 2003년 창립되어 2004년 10월 올숙도 문화회관 1, 2, 3 전시실에서 창립전을 시작으로 현재 200여 명의 회원과 더불어 21년째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부산지회 고문, 자문, 회원, 비회원 부산지역 선정 초대 작가등 약 100여명이 참여하며 서양화, 수채화, 한국화, 조각, 공예, 디자인 등 다양한 분과에서 참여해 20호 이내 1점씩 선보인다.

2025년 정기전 출품작품. (왼쪽)송대호 _겨림의 기을 10호P, (오른쪽)류동필 _Meomory.

파묵행전 개최

4월 9일~19일,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

2002년 창립전을 가지며 시작을 알린 파묵행의 정기전이 4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열린다. 파묵행은 옛 문인들의 교양 내지는 예술 활동으로 이어져 오는 서예, 문인화가 아직도 즐지어 쓰는 글씨와 대난국죽의 옛 표현들에서 발전되어 현대의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현대성에 접근한다.

이번 전시는 '동의(同異)'라는 부제로 같은 듯 다른 표현, 각자의 개성이 돋보인다. 다양한 연령대로 이루어진 작가들이 모인 만큼 각자의 생각하는 의도와 깊이들이 새로운 표현기법을 통해 표출된다.

파묵행 이계수 회장은 "지역 미술과 예술 분야에서 색다른 동양의 표현재료인 먹으로 구사하는 만큼 보는 이의 가슴 속 깊은 울림으로 와 닿을 만큼 좋은 작품을 제작해야 하는 숙제를 안는다. 부산에선 해마다 하는 전시이지만 서울에선 오랜만의 전시인지라 질됐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전했다.

2025 파묵행전 대표작품 사진.

부울원미술인회 '제2회 마음이 끌리다展'

4월15~20일, 금련산 갤러리

부울원미술인회는 작은 소모임으로 매년 3~4회 소규모 전시를 열었고, 이러한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 작년부터 40여명의 회원들과 단체전을 열 수 있는 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4월 15일 부터 20일까지 금련산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마음이 그림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총 42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개개인의 철학과 사상이 들어간 순수회화, 디자인, 민화, 일러스트 등의 작품들을 전시한다.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일상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서로의 감정과 마음을 솔직하게 알아내고 공유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전한다.

부울원미술인회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서 좀 더 공감되며 응원과 격려를 받는 단체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 단체의 작품들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사람들의 마음 깊이 울림을 주는 작품들로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작년 전시도록 표지 및 작품사진.

제3회 잎새회 정기전 열려

4월 23일~28일,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잎새회 정기전이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화양연화'라는 부제로 하여, 작품 총 40여 점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내안의 모든 것을 꺼내어 풀어헤쳐 모으는 작업을 통해 회원들의 소중한 것들을 화폭에 담기위해 에너지를 쏟아 붓는 과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고자 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자연, 꽃, 산, 정물 등 우리 주변의 풍경을 위주로 캔버스에 마티에르를 최대한 살려 질퍽한 질감과 깊이를 느낄 수 있도록 칠하고 오랜 시간을 공들여 붓과 나이트로 새겨 넣었다. 눈앞에 있는 풍경이나 사물을 자신의 내면으로 들여와 내재되어 있는 경험이나 자기만의 색깔로 생명을 불어넣는다.

잎새회 김쾌분 회장은 "회원들의 작품을 통해 서로 동기부여가 되어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1년 후의 전시 계획을 세우고 전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제3회 정기전 대표작품 사진.

4인 4색
11.8–1.31 독락의 탑 갤러리

감천문화마을 공예 공민지, 서양화 신혜경, 섬유 박민경, 민화 정경에 작가가 각각 15여 점의 작품 선보이며 총 60여 점의 소품전과 아트상품으로 꾸며진 단체전을 열었다. 꽃송이가 피어나는 것처럼 아름다운 선물을 안겨주는 마음을 담은 신혜경, 반복되는 작업 속에서 발견한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 삶의 형태를 빚어가는 조화로움을 그려낸 공민지, 삶의 희로애락을 그리는 민화가 정경에, 섬유를 직조하여 작업한 박민영 작가의 작품까지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었다.

이태호 〈주체가 빈, 자리에서〉
12.19–1.18 레오엔갤러리

1981년 첫 개인전을 열었으며 송이에 먹으로 그림을 그린 억새와 물결시리즈로 대표작을 알린 이 작가의 작품 속 등장 하는 사람들은 기억 속에 있는 사건들을 불러내듯 실제가 아닌, 불확실한 형상들의 단편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듯 실재와 형상이 어긋난 느낌을 더한다. 이종우 대표는 "작가님의 그림을 보면 주체인 '나'는 없고 마치 '나' 아닌 것들을 연상하게 한다. 그 비워진 부분에 내가 아닌 잊고 있던 그 누군가 또는 그 무엇을 다시 소환하여 기억하게 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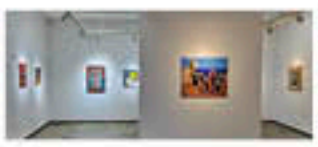
김창희展
12.21–1.30 아트웨이갤러리

김 작가는 친숙하면서도 익살스러운 얼굴표정을 드러낸 공예 작품을 선보여 인간의 내면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대한 솔직하고 진지한 사유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다. 형형색색으로 담겨 있는 풍선들 팽창과 수축, 긴장과 이완에서 오는 풍선의 물성으로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표현의 영역을 확대했다. 타인을 통해 비추어진 자신의 정체성은 주위 공간을 점유하는 하나의 존재로서 자율성을 가지며 즉흥적 표현의 대상으로 기쁨과 슬픔, 설레임과 두려움 등 양면성을 드러낸다.

박향미展
1.1–3.20 이룸갤러리

박향미 작가는 〈자발적 명상〉 시리즈를 통해 현대 도시의 물질문명과 정신적 가치의 대비를 섬세하게 표현한 한국화 작품 18점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재료와 도시화된 현대사회가 잃어가고 있는 가치들을 섬세하게 포착하였다. 작품 속 잃어가는 정신적 가치와 물질문명의 팽창사이의 간장관계는 작가 특유의 미감을 보여준다. 현대인의 물질적 욕망을 상징하는 수직으로 뻗은 빌딩과 연꽃을 연상시키는 원형의 이미지는 옻칠을 가미한 한지의 사용과 선적인 요소를 살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적 기법을 기미했다.

출발 25인전 – 해 아래 새 것은 없으니_
1.2–1.31 미광화랑



미광화랑은 사해를 맞이하며 그동안 진행했던 기획초대전 작가들의 작품 1점씩을 선별하여 기획전을 준비하였다. 이번 전시는 젊은 작가부터 중견, 원로, 작가의 작품들까지 세대와 장르를 초월한 다양하고 의미있는 미술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라고 할 수 있다. 출품 작가로는 송혜수, 오영재, 문신, 유시원, 김영석, 이동표, 김창성, 서상환, 김충진, 박윤성, 허일지, 박건, 김남진, 신성호, 허미화, 조부경, 리지, 김민경, 방정아, 이진이, 전미경, 이선경, 김성철, 천이름, 김도연 작가가 있다.

최정이 개인전
1.6–1.17 해운대구청 작은갤러리

최정이 작가의 작업은 모든 아픔과 고통, 분노, 질투를 내면 깊은 곳으로 가지고 들어와 사색하면서, 하나의 인간으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나아가고자 한다. 인간의 내면이 발현되는 자신의 사색을 나타내며 마음을 정화하고자 성화를 중심으로 그려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하늘, 구름, 빈즘'을 주제로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에 집을 짓고 상상의 날개를 펼쳐낸다. 기존 유화작업에서 벗어나 10호~30호 캔버스에 모델링 페이스트와 젤스톤으로 밑바탕을 깔고 건조시켜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다.

권순교 개인전
1.7–2.2 M543

이미지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흐릿한 화면 속 이미지는 작가의 어린시절 모든 와식의 내용에 바탕을 둔 영감의 흔적을 일필휘지로 부분적으로 드러내며 곳곳에 무의식의 상징들이 자리 잡고 있다. 권 작가의 작품은 물, 인체 등의 모습이 곳곳에 배어 있다. 화면 위 고요함의 파동을 느끼듯 끊임없이 해체되고 재조합되는 과정은 무의식의 산물이자 새로운 조형적 질서를 찾아가는 작가적 시도이다. 자유로운 영감의 흔적들이 순간 지배하고 초월하며 내면에 남은 추억과 기억이 남아 작품에 투영된다.

TONE展
1.9–2.9 maison de CARIN

인테리어를 아우르는 공간 속 누리는 예술과 문화를 제안하는 전시기획 공간으로 탈바꿈한 메종 드 카린에서 곽철안, 박도운 작가의 2인전 TONE이 열렸다. '침묵'을 주제로 작업하는 박 작가는 논리, 생각, 감정, 개념 등 모든 것의 집착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고요함에 집중하며 무위의 자유로운 생명의 역동성과 적극적인 창조력에 집중한다. 리드미컬한 움직임과 경쾌한 어조로 자신의 생각을 형태화한 세계관을 펼치고 있는 곽 작가는 붓글씨에서 힌트를 얻어 응용한 작업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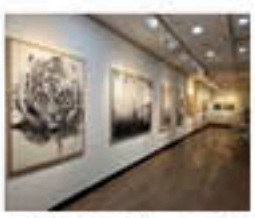
최영환 개인전 〈야행성〉
1.11–1.31 낭만시간연구소

동구에 자리 잡은 전시관 낭만시간 연구소의 9번째 전시는 2025년 '밤' 시리즈의 3개의 전시 중 첫 번째 전시로 자연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어 순환적 생태구조를 복원하고자 염원을 담아낸 최영환 작가의 개인전으로 진행됐다. 최 작가의 야행성 연작은 생존을 위해 늦은 밤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들과 자연현상을 시각화하여 낮에는 생계활동을, 밤에는 작업을 이어가는 자신을 생존적 삶을 투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야행성이란 전시명에 걸맞게 주말 오후 10시까지 야간 개장으로 진행되었다.

제22회 허정임 개인전 〈CONNECTOME〉
1.14–1.20 리빈갤러리

허 작가는 책 「커넥톰, 뇌의 지도」 읽고 한지 위에 수묵담채, 연필로 작업한 평면 작품을 선보였다. 스트레오 시스템이 들려주는 음악이 인간의 마음이라면, CD 표면의 물질적 구조는 커넥톰이다. 사전적 정의의 '커넥톰'은 뇌 속에 있는 신경 세포들의 연결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뇌 회로도이며 인간의 마음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때, 커넥톰은 영혼의 물질적 구조인 셈이며, 우주보다 더 복잡한 또 하나의 우주이며 아주 먼 미래로 작용한다.

김복일 개인전 〈바람의 향기〉
2.1–2.10 국제자하도상가 미술의 거리 갤러리



부산 중구 남포동 국제시장상가 지하도에 있는 미술의 거리 갤러리가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지난 2월 1일부터 전시를 재개했다. 전시 재개 후, 첫 전시로 한국화를 기반으로 과거에서 현재로의 변화를 받아들여 제작된 선과 색의 작업 방식을 선보이는 김복일 작가의 '바람의 향기' 기획전이 열렸다. 그는 호랑이와 숲을 그리고 그 존재의 시선과 마음의 숲을 통해 삶의 무게와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미술의 거리 갤러리는 상반기 동안 이번 전시를 비롯해 총 13건의 전시가 예정돼 있다.

한국화 분과기획전 〈자갈치에서 경복궁까지〉
2.5–2.10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

한국화의 선, 여백, 농담, 다양한 현대 한국화의 소재 및 기법과 표현으로 전통과 현대 한국화의 정체성, 새로운 한국화의 방향성을 모색·탐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국화 분과기획전이 열렸다. 더욱 솔직한 방식으로 오늘이라는 시대성을 반영하고 필묵의 새로운 표정을 더하는 전시로 거듭나고자 한국화의 이해와 관심의 폭이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청년 작가와 한국화 애호가들의 저변 참여 확대로 부산 한국화의 현재를 바라보고 밝은 미래를 가늠해 보고자 했다.

신광수 개인전
2.1–2.13 BNK 부산은행 갤러리

이번 전시에서 신 작가는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독특한 색감과 표현으로 소나무의 상징적 의미와 숨겨진 기억, 현 의식이 합쳐진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담아낸 유화 작품을 선보였다. 매일 계속되는 일상에 묻힌 기억과 남아있는 기억들이 뒤엉켜서 오늘이 존재하듯 이러한 기억을 모아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 단순히 대상의 표현에만 그치지 않고 어지러운 세상이 선량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하늘에 기도하는 작가의 마음으로 이러한 내면의 이야기들을, 소나무를 통해 독창적인 세계로 현실을 묘사한다.

문인화 분과기획전
2.12–2.17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

정회원과 원로회원으로 구성되는 부산문인화작가회는 매년 세미나, 연구발표회, 회원전을 개최하여 작가들의 작품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문인화의 봄의 향해'라는 제목으로, 총 50여 명의 작가들의 족자 작품으로 전시했다. 전통 미술을 널리 알리고 주체적인 발상과 구상으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대중들에게 문인화만이 갖는 고유성과 유기적인 연계 이미지를 통해 더욱 가까이에서 접할 기회를 제공했다.

영상설치 분과기획전 〈New Exit〉
2.19–2.24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

이번 영상설치분과 기획전은 AI 시대의 흐름 속에서 5개국(한국, 미국, 중국, 대만, 몽골)의 작가들이 개인적인 감성과 독창적 해석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출구'를 탐구하는 국제 영상 설치 전시형태로 진행됐다. 2m 이내 공간을 활용하여 전통과 첨단 기술의 융합 속에서 창작의 경계를 확장하고, 각국 작가들의 개별적인 시선이 미래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문화와 감성이 교차하는 실험적인 장을 통해 글로벌 예술의 혁신을 경험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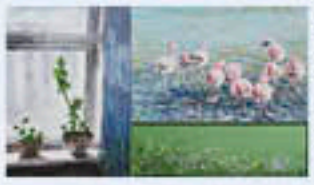
다름의 어울림
2.24–3.4 BNK 부산은행 갤러리

서양화, 동양화, 조소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부산출신 작가 3명이 만나 3인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김복일, 이미라, 양수미 작가의 작품 40여점을 선보였으며 서로 다른 세 가지 영역의 미술이 만나 좀 더 확장된 시도들을 이루고자 했다. 서로 다름이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번 전시는 아트페어와 단체전을 통해 우연한 계기로 알게된 3인은 미술에 대한 서로의 열정을 격려하고 각자의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들으며 작업의 다양성을 추구해 나가고자 마련됐다.

판화 분과기획전
2.26–3.3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

이번 판화분과 기획전은 판화가 갖는 독특한 개념을 중심으로 원판을 이용한 다양한 버전의 판화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기존 도서의 표지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꿔 재출간하거나, 앨범과 영화 등의 재발매판을 뜻하는 '리커버 에디션'을 통해 원작을 기반으로 한 현대적인 해석과 요소들을 가미하여 새롭게 재탄생시켰다. 다양한 변환 과정을 통해 원래의 판화 작품을 재조명해보며 한정판이나 특별판의 의미가 있도록 리커버 제작과정에 집중하여 현대 판화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냈다.

수채화분과 정기전 〈삶을 담은 삼색전〉
3.24–3.29, 3.25–3.30 시청 제2, 3전시실, 금련산갤러리



이번 정기전은 회원·비회원이 같이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했지만, 전시 공간의 부족으로 시청 전시실과 금련산갤러리 두 곳에서 나뉘어 열릴 예정이다. 일상의 안연의 주제로 한 인물화,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풍경화, 일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정물화로 삼색의 소리를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회원·비회원의 소통을 위해 3월 26일 수요일 2~3시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조규철 고문, 양충근 작가의 인물화 시연이 열린다.

전시일정

부산미술은 부산미술협회 회원님들과 미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격월로 월초에 발간되는 부산미술은 회원님들의 귀중한 전시소식을 기다립니다. 발간 전월 15일까지 전시소식을 부산미협으로 보내주시면 다음달 발간되는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bfaa2015@hanmail.net : 전시명, 작가명(단체전일 경우 참여 작가명단), 전시기간, 갤러리명, 연락처, 작품 이미지(저화질 게재 불가/파일 제목 캡션 필수), 전시 주제 또는 작가의 한마디를 담은 1~2줄의 문장]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 특별전 개최

2024년 부산미술대전 지상전에 참여한 서양화부문 전시

3월 5일부터 17일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려

부산미술대전은 지난 1975년 제1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0여 년간 이어져 오며, 대한민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수많은 작가를 배출해 왔다. 미술 전 장르의 작품을 전국 공모하여 뛰어난 작품을 시상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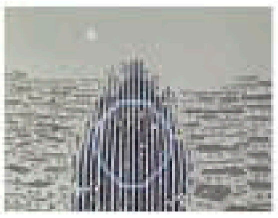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미술 공모전이자 미술 축제로 자리 잡았다.

우리 나라 근현대 미술의 뿌리이자 부산미술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 문화의식과 지역 성장에 필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정식으로 정기총회 초대작가 인증서를 수여하여 45년간 지상전을 통해 만나 볼 수 있었던 초대작가들의 작품과 직접 교감하며 작가의 작업 속에 나타나는 독창성과 새로운 경계의 지평을 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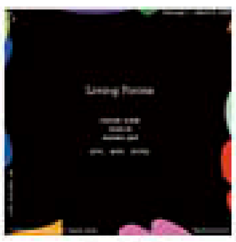
이번 초대작가 특별전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경륜을 느낄 수 있는 작품 발표 자리를 마련하고 창작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작가 개개인의 정체성과 차별화된 작품세계를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더불어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 특별전에 참여한 33명의 초대작가는 치열하게 사유하고 자기만의 주제를 찾아가는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통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우리 지역 문화예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초대작가들이 많아지고 전시회를 진행할 만큼 역량이 축적된 삶의 표현이자 철학이 담겨있다. 인생을 담아낸 예술 작품들은 풍요로운 삶과 자유로운 조형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꽃피우는 시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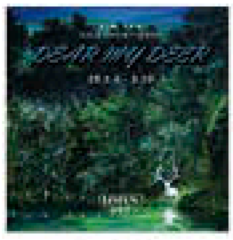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 특별전 도록.


1.1~3.20
박향미 초대작가전 '자발적 명상'
이룸갤러리

1.9~3.9
구상과 추상
리나갤러리



2.1~3.8
Living Forms
갤러리 플레이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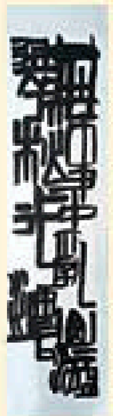


2.4~3.29
김산 개인전 'Dear My Deer'
로티스갤러리

부산갤러리 전시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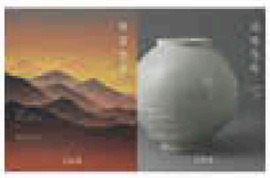
인사아트 부산갤러리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1-1 인사아트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가 운영하는 전시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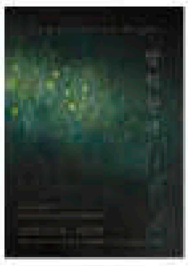
2.26~3.3
판화분과기획전


4.9~4.14
파묵행전 '동이同異전'

4.23~4.28
제3회 임새전 '화양연화'

2.13~3.9
WINTER COLLECTION
OKNP부산


2.14~3.9
달빛정원展
Maison de CARN


2.15~3.9
손유하 개인전
낭만시간연구소

2.18~3.13
김다솔 개인전 '몽롱명'
갤러리유피

2.18~4.10
PRESENT! 원석의 선물 다이아몬드 이전의 빛 展
갤러리하스

2.22~3.22
강혜은 개인전
혁화랑

3.5~4.30
채성필 개인전 물의 초상
데이트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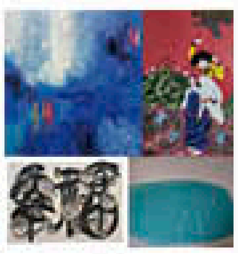
3.10~3.15
제20회 환경미술협회 정기전
부산시청 2, 3전시실

3.12~4.11
신지영, 양호정 '3월, 피어나다'
레오앤갤러리

4.3~4.6 2025
제14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벡스코홀 1, 2

4.15~4.20
2025 제2회 마음이 끌리다展
금련산갤러리

4.23~4.28
아름다운 우리 그림 온고지신 溫故知新
부산디자인진흥센터 1층 전시실


4.29~5.4
2025 신라대동문전
금련산갤러리

부산미술 등록번호 부산남,라00005
- 발 행 인 : 최장락
- 발 행 처 : 사)부산미술협회
- 편집위원 : 김성헌 · 김종원 · 정연은 · 진수아 신현정
- 편집기자 : 김은비
- 주 소 : 48501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대연동) 부산예술회관 402호
- Tel. 051) 632-2400 Fax. 051) 644-4183

The 21th SONG HYE SOO Art Award

제21회 송혜수 미술상 공고

송혜수미술상은 故송혜수선생님(화백,1913~2005)의 작가정신을 이어받아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는 참 미술인을 찾아 포상함으로써 미술인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우리나라 미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미술상입니다. 「제21회 송혜수 미술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분야 : 평면(회화), 입체(조각)**
■ **시상인원 :** 1명
■ **시상내용 :** 시상금 10,000,000원
(시상금 5,000,000원/ 전시지원비용 5,000,000원)
■ **후보 자격**
부산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평면(회화)과 입체(조각)부문에서 20년 이상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공고일 현재 만60세 이상의 작가
■ **후보자 추천**
-한국미술협회(지회)장, 대학총장 및 관련대학 학장, 미술단체장, 미술관 관장, 화랑 대표
-10인 이상의 본 협회 회원 또는 미술인 추천 가능
※ 후보자 추천서 양식 ①, ② 확인후 작성바람.
■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 7~9인으로 구성하여 수상자를 선정함
■ **후보자 제출서류**
※제출서류중 증빙자료(원본포함) 반출가능
-추천서, 공적조서, 사진1매(명함판)
※추천서는 본협회 홈페이지내 협회소식란 참조
-증빙자료 (중복자료 심사제외)
①정량적 평가: 20년 이상의 원본자료 및 실적자료 목록표 ※심사표(정량적 평가) 본인 작성
②정성적 평가: 포트폴리오 (전체경력, 연도별 구분)
-최종 수상자 선정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심사대상 제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당해 운영위원 및 후보자 추천위원은 제외함
■ **서류제출일자**
2025년 3월 28일(금) 오후5시까지(부산미술협회 사무국)
■ **심사발표**
2025년 4월 초(개별통보, 미협 홈페이지, 언론)
■ **사상식 및 기념전시회**
-수상자는 당해 수상기념 개인전을 개최하여야 함
-시상금은 수상기념 개인전의 전시개막식 때 수여하며, 수상기념전 미개최 시 시상금은 수여하지 않음
-수상 기념전은 부산미술협회에서 지정한 금련산 갤러리에서 개최하여야 함
-故송혜수 작가 기념전과 함께 개최함(전시장소 (약10m)는 미술협회가 지정전시함)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
(48501)부산광역시남구용소로78 부산예술회관 4층 부산미술협회 〈송혜수 미술상 운영위원회〉 Tel. 051-632-2400 Fax:051-644-4183 홈페이지 : http://www.bfaa.or.kr

송혜수미술상 운영위원장 박 선 민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이사장 최 장 락

제45회 부산미술제 개최요강

주 최 :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 / **주 관 :** 부산미술제 운영위원회
장 소 : 벡스코 제2전시실 6홀(F)
기 간 : 2025년 6월 26일(목) ~ 6월 29일(일)
출품대상 : ① 부산미술협회 회원 ② 비회원 : 본 협회 회원 1명 이상의 추천하는 자
작품출품 규격

구 분	규 격
평면	15호 이내(규격 엄수) -가로작품 액자포함 65cm 이내 (한국화, 서양화, 판화, 수채화, 민화 · 불화 등)
디자인	A1사이즈 이내 - 세로작품(필)
입체 (조각), 공예	60cm× 60cm× 180cm이내※(입체작품 최대 개인준비) 도난의 우려가 있는 소형의 작품이나 귀금속 공예 등은 투명보호 상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출품하셔야 합니다.
영상, 설치, 행위미술	출품원서 검토 후 전시(행위)공간 조정 ※(입체작품 최대 개인준비)
학술평론	A4(1페이지 이내)
서예 , 문인화	가로50cm, 세로70cm 이내

출품 수 : 1인 1점에 한함
출품자료 제출일자 : 2025년 4월 13일(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마감 ※반드시 기한엄수
출품자료 : 가) 출품원서(소정양식)1부, 인물사진(흑백 또는 칼라) 1매, 작품사진(슬라이드 또는 5×7 Size사진)1매 (웹 하드에 자료를 올리신 분은 반드시 원서에 기입바람) 나) 영상,설치,행위분과의 경우(계획서)와(도록용 자료사진)을 제출하시고 운영위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작품사진은 반드시 출품작품과 일치하여야 하며, 구겨지지 않도록 가급적 보호판 사용바람. (반드시 그림의 상, 하, 좌, 우 위치표시 할 것)
자료제출장소 : 부산미술협회.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4층 402호 (우)48501
자료 제출 방 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웹하드 (https://only.webhard.co.kr) 웹하드 (ID: blae21 / 비밀번호: 2004 /폴더명 : 제45회 부산미술제→회원, 비회원→각 부문별)
출 품 료 : 회원 8만원 (도록 1인당 1부씩 배부) 비회원 20만원 (도록 1인당 1부씩 배부)
※지상전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분은 출품료의 75%의 금액으로 참여할수 있습니다.
※부산미협에서 실행하는 작품 추천 및 플랫폼 제작등은 부산미술제 도록으로 실행합니다.
입금계좌 : 부산은행 022-13-001105-2 (예금주 : 부산미술협회)
※ 입금자명이 다를 경우 반드시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출품료는 출품원서의 제출마감 기일(4월 13일(일))이내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일 내 미납 시, 전시도록 제작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 사)부산미술협회 전화 051-632-2400 홈페이지 http://www.bfaa.or.kr

부산미술협회와 디자인하우스가 공동주최협업하는 2025 제14회 BFAA국제아트페어 공고

주최 : 사)부산미술협회, 디자인하우스(행복이 가득한 집)
주관 : 2025 BFAA 부산미술협회 아트페어 운영위원회
장소 : 벡스코 제2전시장 3홀(D, E, F)
기간 : 2025년 6월 26일(목) ~ 6월 29일(일) (4일간)
전시장르 :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 공예, 디자인, 서예, 학술평론, 영상설치행위, 문인화, 수채화, 민화 · 불화
전시구분 : 부스구성 (A부스, B부스, C부스), 지역대학연계 청년작가 초대전 및 타지역작가 교류전 / 교토 및 후쿠오카 아트페어와 연계 국제교류전 / 공유공간 특별전 /조각작품 특별전 ※ 행사구성은 추후 변동가능성 있음
참가비 납부 : 4월 30일(수)까지 납부 ※ 기간내 부스비 미납일 경우 참가 포기로 간주
부스 규격 및 가격

타입	수량	크기	기본제공	부스비
A 부스	66개	좌우측 2m, 전면벽 5m, 높이 3m	1m×3m 9장, 조명등 4개, 책상 1개, 의자 1개	회 원: 140만원 중 간: 160만원 비회원: 170만원
B 부스	20개	좌우측 3m, 전면벽 6m, 높이 3m	1m×3m 12장, 조명등 7개, 책상 1개, 의자 1개	회 원: 190만원 중 간: 210만원 비회원: 230만원
C 부스	11개	좌우측 2m, 전면벽 10m 높이 3m	1m×3m 16장, 조명등 10개, 책상 1개, 의자 1개	회 원: 250만원 중 간: 280만원 비회원: 300만원

※ 부스비 포함사항 : 종합도록 (A부스 1page, B부스 2page, C부스 3page 게재), 및 홍보비
※ A부스 최대 2인, B부스 최대 4인, C부스 최대 10인까지 가능하며 page 레이아웃은 추후 협의
※ 전시장 사정에 의해 부스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중간가격은 부산미술협회회원 50% 이상 참여해야 인정.
- 기본제공 외 판넬, 조명, 부스도색 추가는 추후 개별 신청. (추가 판넬비 및 조명비, 부스 도색비 개인부담)
※각 부스별 전시작품중에서 80호이상이 1점 있어야함.
종합도록 자료 제출 : 참가자는 종합도록에 들어갈 작가사진, 프로필, 작품 이미지 자료 1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제출
인터넷 제출 ① 웹하드(www.webhard.co.kr)에 접속 후 로그인(아이디 : blaa21/ 비번 : 2004) ② 부스전/초대전 폴더선택→참여신청 작가명으로 폴더생성→자료제출
방문 제출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4층 402호 부산미술협회
부스 배정 : 부스 위치는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추첨 : 2025년 4월 30일(수) 부산미술협회 사무국
입금계좌 : 부산은행 101-2046-8532-01 / 예금주 : 사단법인부산미술협회 최장락
문의: 사)부산미술협회(전화 051-632-2400 홈페이지 http://www.bfaa.or.kr)

* 본 간행물은 2025년 부산광역시비를 일부 지원받아 제작합니다.